

## 부산지역 빈곤층의 빈곤 구성 요소의 성차

허미영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A Study of the Gender Differences' Composition Affecting Poverty in Busan

Huh, Mee Young

Center for Women' Studie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ender differences' composition affecting poverty in Busan and possible strategies for overcoming povert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both common and differentiating points regarding gender in poverty situations. Poverty stricken women, tended to be older and less educated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n the case of men,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physical disabilities than women. There were more women compared to men when regarding divorce and separation due to the death of a spouse as contributing to poverty. Women estimated that it was much easier to overcome their poverty situation as they were younger and had more income. However,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regard to actual re-establishment. For men, education level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overcoming poverty while for women; the existence of a spouse was the important variab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gender sensitive approach is necessary to address and find solutions to the poverty issue.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s findings ma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nd support for changes to the welfare policy.

Key words: poverty, composition of the poverty, gender difference, gender sensitive approach, re-establishment possibility

#### I. 서론

빈곤의 문제를 성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혜영 등 2005; 이영자 2006; 석재은·임정기 2007; 허미영 2006a).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 빈곤의 여성화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는 이런 현상을 의미한다(Pearce 1978; Pierson 2001).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경제적 지위는 남편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남성이 없는 경우에 빈곤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석재은·임정기 2007). 또한 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족 내 성별관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숙진 2002)에 여성지원에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KRF-2003-072-BM1003).

접수일: 2007년 7월 30일 채택일: 2008년 3월 3일

Corresponding Author: Huh, Mee-Young Tel: 82-51-999-5340 Fax: 82-51-999-5183

e-mail: huhmy1@empal.com

현재 한국사회에서 경험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 양상은 오래된 젠더불평등 구조와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서 발생한 빈곤의 특성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의 여성화는 가족구조의 변모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Millar & Glendinning 1987)에,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가계 책임이 증가하면서 여성빈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김영란 2006; 김혜영 2004; 석재은 등 2003; 송호근 2002; 이혜경 1998; 정미숙 2001; 허미영 2006a, 2006b)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주목하게 된 시기는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IMF시기('97.8-'98.7)에는 여성가구주 중 빈곤가구가 43.8%로 증가하여 남성 빈곤가구 19.8%의 두 배가 넘었다(유정원 1999).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 중 여성비율이 58.1%, 가구 수 중 여성가구주가 55.5%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여성가구의 절반 정도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강남식 등 2001; 장세훈 2000), 200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2/3가 여성가구주이며, 도시빈곤가구주 중 1/3이 여성가구주이다(김영란 2005).

빈곤의 성별요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빈곤의 여성화가 가시화되며,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장세훈 2000). 최근의 사회변화 또한 빈곤구조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빈곤에 취약한 여성들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도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지형을 확인하고, 빈곤문제를 젠더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빈곤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구성의 특징 및 성차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탈출가능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빈곤구성의 요소

빈곤연구는 빈곤실태 및 원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빈곤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빈곤구성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구성의 이질성이다. 빈곤구성이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지역별 다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 및 지원이 요구된다(최연수·류현규 2003).

빈곤구성의 연구들 또한 빈곤구성의 이질성을 확증시킨다. Pampel(1998)에 의하면, 빈곤에서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 간 차이가 있음 보여주고 있고, McLaughlin과 Jensen(2000)에 의하면, 노령여성의 빈곤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죽음이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의 상실과 연계됨을 시사한다(Simon-Rusinowitz et al. 1998; Jonson et al. 1999, 석재은·임정기 2007 재인용). 가구형태 또한 빈곤구성의 주된 요소로 단독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수·류현규 2003).

빈곤구성에 관한 연구 중에서 성별요인과 연령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빈곤의 여성화'와 '빈곤의 고령화'현상이 빈곤의 주요 현상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빈곤의 여성화와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고령화는 공적연금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는 면에서 시사적이다(최연수·류현규 2003).

이 논문에서는 빈곤의 성별차원을 분석의 기본차원으로 놓고 빈곤구성의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연령, 학력, 직업 및 취업상태, 장애 및 건강상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 소득, 부채, 경제적 지위와 같은 경제적 측면, 배우자유무, 가구형태, 가족의 신용불량자 및 질병유무와 같은 가구 특성의 측면들이 빈곤탈출 가능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연구자료는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의 '지역사회의 빈곤형성과 재생산에 대한 연구'의 3년차





3) 장애와 건강상태

일부 젊고 자녀가 있는 빈곤층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자활, 서비스 등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자녀 돌봄에 따르는 노동시간의 제한과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나금실 2005). 특히 노동지향의 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빈곤지형의 중요한 형태인 ‘낮은 학력, 높은 연령’의 빈곤층은 노동참여의 개인적 한계로 더욱 빈곤한 상태이다.

노동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질병 또한 장애여부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35%가 장애가 있었다. 빈곤층의 장애인 비율이 약 35%에 달한다는 사실은 빈곤원인이 장애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빈곤구성에서 장애 및 질병이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참여 및 빈곤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 54.8%가, 여성 23.9%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장애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빈곤의 일부가 장애로 인하여 노동참여가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성 장애는 고단한 노동내역의 결과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대개 인적자원이 빈약한 빈곤층은 막노동시장에서 노

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과정에서 사고로 장애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허미영 2006a).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는 매우 건강하다’라는 4점 척도상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공히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남성 79.4%, 여성의 경우에 90.2%였다. 그러나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아니다’ 45.8%, ‘전혀 아니다’ 33.6%인데 반하여, 여성은 ‘아니다’가 65.6%이고 ‘전혀 아니다’가 24.6%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지만 남성의 ‘전혀 아니다’라는 반응이 높은 것은 장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소득요인

1) 소득과 부채

소득과 부채 등 경제적인 문제는 빈곤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득의 측면에서 빈곤층을 보면 빈곤구성의 이질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부 가구는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끼니를 걱정하는 반면에 일부가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

Table 3. Impediment and healthy states

				N(%)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chi^2$
Impediment	no impediment	47(45.2)	150(76.9)	197(65.9)	
	1 class	9(8.7)	6(3.1)	15(5.0)	
	2 class	9(8.7)	13(6.7)	22(7.4)	
	3 class	24(23.1)	6(3.1)	30(10.0)	
	4 class	6(5.8)	8(4.1)	14(4.7)	
	5 class	4(3.8)	4(2.1)	8(2.7)	
	6 class	1(1.0)	6(3.1)	7(2.3)	
	not registered impediment	4(3.8)	2(1.0)	6(2.0)	
total		104(100)	195(100)	299(100)	
Healthy states	very heathy	6(5.6)	5(2.6)	11(3.6)	12.628**
	heathy	16(15.0)	14(7.2)	30(9.9)	
	poor heathy	49(45.8)	128(65.6)	177(58.6)	
	never heathy	36(33.6)	48(24.6)	84(27.8)	
	total	107(100.0)	195(100.0)	302(100.0)	

\*\* p<.01, \*\*\* p<.001

Table 4. Income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t-value
	M(SD)	N	M(SD)	N	M(SD)	N	
General income	765,300(485748.69)	48	977,063(1695914.50)	77	895,646(1364408.3)	124	-.841
Public transfer	403,239(233772.31)	84	303,823(355431.79)	144	340,496(222175.08)	228	2.289*
Private transfer	169,668(206143.07)	25	167,708(231144.77)	54	168,331(319127.68)	79	.036

Notice) General income was added up from of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and social insurance income, etc. Public transfer is added up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remuneration, single parent subsidy, and disabled person subsidy. Private transfer means the money from own family, relatives, and other various organizations.

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허미영 2006b). 하지만 전체적으로 빈곤층을 바라보면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304가구 중에서 124가구가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약 90만원 정도였다. 이중 공적소득은 228가구가 월 평균 34만원 받았으며, 사적소득은 79가구가 월평균 17만원 받았다. 소득을 성별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일반소득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약 20만 원 정도 많았으며, 공적소득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만정도 더 많았다.

소득원에 대한 성별차이는 성별로 차별화된 사회구조와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참여가 가능한 여성의 경우에는 다양한 노동참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성별로 차별화된 연금제도의 적용으로 공적이전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평균소득은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소득이 많은 가계가 평균 소득을 상향 조정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에서 부채는 탈출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부채가 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Table 5. Debt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N(%)	
				$\chi^2$	
Have	46(46.5)	75(41.0)	121(42.9)	.788	
Have not	53(53.5)	108(59.0)	161(57.1)		
Total	99(100.0)	183(100.0)	282(100.0)		

Table 6. Monthly household expenses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t-value
	M(SD)	N	M(SD)	N	M(SD)	N	
Articles of food fee	206,498(171,984)	91	131,437(101,723)	180	156,591(134,039)	271	4.503***
Dining out fee	4,005(20,317)	73	6,571(22,915)	142	5,705(22,058)	215	-.806
Housing expenditure	53,483(95,955)	77	63,826(174,120)	148	60,300(151,892)	225	-.484
Medical expenses	66,293(133,393)	79	55,716(97,854)	161	59,183(110,592)	240	.694
Apartment management expenses etc	92,791(83,484)	95	65,172(54,345)	173	74,986(67,343)	269	3.276***
Culture & communication fee, etc	30,973(38,312)	79	39,753(54,407)	157	36,806(9,679)	236	-1.284
Public education fee	3,434(18,338)	72	16,634(64,271)	138	12,128(53,545)	210	-1.701
Private education fee	20,467(72,673)	73	36,277(92,361)	139	30,801(86,207)	212	-.272
Expenses for events	13,143(34,186)	74	11,330(26,762)	147	11,940(29,404)	221	.432
Traffic expenses	45,290(56,727)	85	43,579(57,324)	170	44,149(57,020)	255	.226
Others	42,832(89,404)	76	39,625(134,572)	144	40,735(120,665)	220	.187
Total	515,820(295,822)	97	434,388(358,401)	181	462,775(339,593)	278	

\*\*\* p<.001

보면, 42.9%가 부채가 있었으며, 이것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46.2%, 여성은 41.0%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2) 월 평균 가계지출과 5년 후 가계전망

지출내역을 보면, 월 평균 약 46만 원 정도 소비하는데, 그 중 식료품 관련 비용으로 약 15만 원, 주거 관련비용으로 약 14만 원 정도 소비하였다. 이를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여성은 약 43만원, 남성은 약 51만원 지출하였다. 여성은 식료품 관련 비용 및 주거 관련 비용으로 각각 약 13만 원 정도 소비하는데 반하여 남성은 식료품 관련 비용 약 20만 원 정도, 주거 관련 비용으로 약 14만원 정도 소비하였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만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향후 5년 후의 가계소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가계전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빈곤층은 빈곤문화에 젖어있으며, 장래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의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허미영 2006b). 약 50%가 현재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약 25%가 긍정적인 전망을, 약 25%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약 75%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3. 가구특성

1) 가구형태

가족은 지원 및 희망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지형의 주요 요인임에 틀림없다. 여성의 빈곤화 또한 남편의 경제적 지원이 어렵게 된 상태

에서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한 부모 가구, 예를 들어, 부자가구나 조손가구보다 모자가구가 더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자녀의 보호 및 지원이 어머니에게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구인회 2002; 허미영 2006a, 2006b).

빈곤층의 혼인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별이 39.5%로 가장 많고, 결혼유지가 34.4%였으며, 이혼 16.7%, 별거 3.0%였다. 현재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구는 34.4%이고, 65.6%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부부간 지원이 어려운 상태였다. 혼인상태를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여성은 56.4%가 사별하였으며, 유배우자 21.5%, 이혼 16.9%, 별거 2.6%인데 반하여 남성은 유배우자 상태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이 16.8%로 그 다음이었다. 여성빈곤이 남편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비롯되는 데, 남편의 부재 후에 경제를 뒷받침할 공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정진호 등 2005)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혼인상태와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36.5%가 단독가구이며, 18.1%가 모자가구이고, 일반 혹은 부부가구는 33.6%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 단독가구가 4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모자가구로 25.5%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 일반가구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가구 27.8%였다. 또한 단독가구도 21.3%로 적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빈곤과 가족구성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남성이

Table 7. Household economic prospect(5 years after)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N(%)	
				$\chi^2$	
Household economic prospect	very good	5(4.8)	2(1.0)	7(2.4)	4.672
	good	20(19.2)	41(21.4)	61(20.6)	
	usually	58(55.8)	103(53.6)	161(54.4)	
	poor	16(15.4)	35(18.2)	51(17.2)	
	very poor	5(4.8)	11(5.7)	16(5.4)	
total	104(100.0)	192(100.0)	296(100.0)		

Table 8. Marriage status, household form

				N(%)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chi^2$
Marriage status	unmarried	14(13.5)	5(2.6)	19(6.4)	80.973***
	married	61(58.7)	42(21.5)	103(34.4)	
	divorced	17(16.3)	33(16.9)	50(16.7)	
	separation by death	8(7.7)	110(56.4)	118(39.5)	
	separated	4(3.8)	5(2.6)	9(3.0)	
	total	104(100)	195(100)	299(100)	
Household form	couple and children	37(34.3)	24(12.2)	61(20.1)	81.259***
	couple	30(27.8)	11(5.6)	41(13.5)	
	mother- children	5(4.6)	50(25.5)	55(18.1)	
	father-children	8(7.4)	2(1.0)	10(3.3)	
	alone	23(21.3)	88(44.9)	111(36.5)	
	grandfather and mother -son	4(3.7)	16(8.2)	20(6.6)	
	others	1(.9)	5(2.6)	6(2.0)	
	total	108	196	304	

\*\*\*p<.001

구주의 3배에 달하고(석재은 2004), 특히 빈곤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빈곤의 여성화현상이 확인되고 있고(석재은 2004; 박영란 2004; 박재규 2003), 따라서 빈곤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영자 2006; 이숙진 2002).

2) 가족문제: 신용불량자와 만성질환자의 존재여부

빈곤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가구의 문제이다. 특히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병행하고, 일부 빈곤구성은 가구 내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빈곤하게 된다. 즉 사업의 실

패로, 가족의 질환으로 혹은 알콜중독이나 놀음으로 인하여 빈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허미영 2006b). 이런 측면에서 신용불량자 및 만성질환자의 존재는 가구를 빈곤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신용불량자는 전체 13.3%였으며, 남성이 15.4%, 여성이 12.1%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9%였고 남성이 27.1%, 여성이 25.3%로 표본의 1/4가량이 가족의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가진 가구원의 존재는 빈곤화 및 빈곤지속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9. Bad credit and chronic disease(household)

				N(%)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chi^2$
Bad credit	have	16(15.4)	23(12.1)	39(13.3)	6.28
	have not	88(84.6)	167(87.9)	255(86.7)	
	total	104(100.0)	190(100.0)	294(100.0)	
Chronic disease	have	29(27.1)	49(25.3)	78(25.9)	.122
	have not	78(72.9)	145(74.7)	223(74.1)	
	total	107(100.0)	194(100.0)	301(100.0)	



### V. 빈곤탈출가능성

#### 1) 빈곤탈출가능성

빈곤탈출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27.2%가 긍정적으로 57.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5.0%였다. 이를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여성의 경우 24.7%가 긍정적으로, 59.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32.1%가 긍정적으로 54.7%가 부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차이는 연령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0대 이하의 79.1%가 긍정적으로, 16.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40대 51.2%가 긍정적으로, 30.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0대의 경우에 이런 상황은 역전되는데, 27.8%가 긍정적으로, 52.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60대가 되면, 긍정적인 응답이 15.5%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 80.3%로 증가한다. 70대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반응이 8.4%로 감소

Table 10. De-poverty possibility

		Very agree	Agree	Not agree	Very not agree	Unknown	Total	N(%)
Gender	male	5(4.7)	29(27.4)	41(38.7)	17(16.0)	14(13.2)	106(100)	3.095
	female	5(2.6)	43(22.1)	89(45.6)	27(13.8)	31(15.9)	195(100)	
	total	10(3.3)	72(23.9)	130(43.2)	44(14.6)	45(15.0)	301(100)	
Age	under 30ties	2(8.3)	17(70.8)	4(16.7)	0(0)	1(4.2)	24(100)	86.562***
	40ties	4(9.3)	18(41.9)	12(27.9)	1(2.3)	8(18.6)	43(100)	
	50ties	1(1.4)	19(26.4)	28(38.9)	10(13.9)	14(19.4)	72(100)	
	60ties	0(0)	11(15.5)	39(54.9)	18(25.4)	3(4.2)	71(100)	
	over 70ties	2(2.4)	5(6.0)	44(53.0)	16(19.3)	16(19.3)	83(100)	
	total	9(3.1)	70(23.9)	127(43.3)	45(15.4)	42(14.3)	293(100)	

\*\*\* p<.001

Table 11. Research Model and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name		Variables value	
dependent variables	de-poverty	five scales (never agree 1, very agree 5)	
Independent variable	age	years	
	education	uneducated 1, graduate school 7	
	individual characteristics	occupation(dummy)	occupation 1
	impediment(dummy)	impediment 1	
	health status	four scales (very healthy 1, never healthy 4)	
	employment(dummy)	employment 1	
	income factor	income(monthly)	10,000 won
	debt(dummy)	debt 1	
	economical situation(monthly)	four scales (very poor 1, very rich 4)	
	household perspectives(after 5 years)	five scales (very poor 1, very good 5)	
household characteristics	spouse(dummy)	spouse 1	
	household form(dummy)	one parents household 1, alone household 2	
	family bad credit(dummy)	bad credit 1	
	family chronic(dummy)	chronical 1	

notice) educational background usually is analyzed dummy variable but is analyzed quantity variables here

notice) one parents household : man or women who is living child together without spouse

하며, 부정적인 반응은 72.3%가 되고, '잘 모르겠다'가 19.3%로 증가한다(Table 10).

2)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빈곤탈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및 측정내용은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주관적인 탈출가능성이며, 주관적인 빈곤탈출가능성을 묻는 5점 척도 상의 문항 값이다. 이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모른다'라는 문항 값이었으며, 이 문항 중에서 '모른다' 응답을 중간 값인 3으로 코딩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빈곤구성의 변수들이었다. 이와 같

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1). 빈곤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첫째는 개인특성에 따른 빈곤구성 요인, 두 번째는 소득요인에 따른 빈곤구성 요인, 세 번째는 가구특성에 따른 빈곤구성 요인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개인적인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장애, 건강상태, 최근 3개월 내 취업상태이며, 소득요인은 월평균소득, 부채여부, 최근 1달간 경제상황, 5년 후 가계전망이며, 가구특성은 혼인상태, 가구형태, 가족 중 신용불량자 여부, 가족 중 만성질환가족의 존재여부 등이었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 간 상관분석의 결과가 Table 12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표를 보면, 연령과 학력이 주요 독립변인과 상관이 높았

Table 12. Correlation table of regression variabl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ome factor				Household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Age	1													
2. Schooling	-.574 (***)	1												
3. Occupation	-.364 (***)	.239 (***)	1											
4. Impediment	-.144 (*)	.105	-.204 (***)	1										
5. Health Status	.152 (**)	-.328 (***)	-.202 (***)	.114 (*)	1									
6. Employment	-.432 (***)	.266 (***)	.813 (**)	-.183 (**)	-.198 (**)	1								
7. Income	-.281 (***)	.293 (***)	-.029	.078	-.072	.231 (***)	1							
8. Debt	.219 (***)	-.169 (**)	-.156 (**)	-.121 (*)	-.201 (**)	-.129 (*)	-.168 (**)	1						
9. Economic Status	-.212 (**)	.246 (***)	.085	.036	-.268 (***)	.065	.152 (*)	.024	1					
10. Perspectives	-.262 (***)	.171 (**)	.075	.027	-.245 (***)	.128 (*)	.031	-.087	.276 (***)	1				
11. Couples	-.108 (N.S)	.210 (***)	-.320 (***)	.264 (***)	.048	.003	.160 (**)	-.200 (**)	-.005	-.013	1			
12. Household form	.395 (***)	-.351 (***)	-.131 (**)	-.326 (***)	.022	-.166 (**)	-.183 (***)	.272 (***)	-.030	-.089	-.601 (***)	1		
13. Bad credit	.263 (***)	-.247 (***)	-.149 (*)	-.063	.035	-.145 (*)	-.297 (***)	.387 (***)	.103	-.197 (**)	-.047	.172 (**)	1	
14. Chronical	-.095 (N.S)	.098	.266 (***)	-.100	-.306 (***)	.304 (***)	.082	.083	.132 (*)	.128 (*)	.067	-.011	-.019	1

\* p<.05, \*\* p<.01, \*\*\* p<.001

으며,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또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인들이 빈곤구성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중다회귀분석 모형 I에서는 종속변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제한하였다. 모형 II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고 소득차원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 III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소득요인을 통제하고 가구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IV는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 IV의 결과를 보면, 5년 후 가계전망(B=.392), 학력(B=.211) 및 월평균소득(B=1.153)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즉 가계전망이 밝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탈출전망 또한 밝았다.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모형 I을 보면, 연령과 학력이 주요 변인이었으며, 영향정도는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은 연령과 학력이 여성보다 더 컸으며,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남성은 연령(B=-.030), 학력(B=.336)이며, 여성은 건강상태(B=-.238), 연령(B=-.016), 학력(B=.166)이었다. 남성의 경우에 연령과 학력은 모형에 관계없이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소득요인이 첨가된 모형 II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연령과 학력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5년 후 가계전망(B=.301)이 중요 변인이었다. 이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과 학력의 변인이 탈락되고 소득(B=1.596)과 가계전망(B=.478)이 진입되었다. 소득과 가계전망은 탈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가구특성이 추가된 모형 III에서는 가구형태가 남녀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입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요인(B=.607)과 가구형태(B=.459)가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구형태에서 한 부모가구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는 단독가구의 비하여 모자가구

Table 13. Gender difference comparison of de poverty possibility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total	
	B	B	B	B	B	B	B	
Individual characteristics	age	-.030***	-.016*	-.043***	.002	-.047***	-.001	-.003
	education	.336***	.166*	.426***	.088	.369***	-.004	.211**
	occupation(dummy)	.075	.212	.138	-.071	.089	-.042	-.113
	impediment(dummy)	.114	.116	.142	.007	.117	-.057	-.088
	health status	-.216	-.238*	-.119	-.229	-.278	-.232*	-.162
	employment(dummy)	.204	-.245	-.181	.200	.062	-.085	.024
Income Factor	income(monthly)			6.325E-08	1.596E-07*	2.034E-07	1.446E-07*	1.153E-07*
	debt(dummy)			-.137	-.259	.165	-.116	-.108
	economical situation(monthly)			-.028	.000	-.040	.012	.001
	household perspectives			.301*	.478***	.286*	.475***	.392***
Household characteristics	spouse(dummy)					-.540	.607**	.258
	household form(dummy)							
	couple household					.558	.229	.066
	one parents household					-1.065*	.459*	.203
	family bad credit(dummy)					-.095	.160	-.144
family chronic(dummy)					-.416	.142	.204	
constants	3.675***	3.723***	3.456*	1.759	4.785*	1.098	1.407	
adjusted R2	.453	.190	.587	.324	.642	.416	.355	
F value	12.457***	6.941***	8.378***	6.722***	6.446	6.235	7.388	

가 탈출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한 반면에 부자가구의 경우에는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내 아동의 존재에 따라 빈곤탈출 확률과 재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구인회(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빈곤구성에서 중요한 변인들이 연령, 학력, 가구형태, 배우자유무 등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의 영향을 성별로 분리해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단연 연령과 학력변인이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5년 후 가계전망 또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처럼 연령과 학력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성들은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5년 후 가계전망, 배우자 유무 및 자녀유무 여부였다.

이런 변인들의 효과는 성별로 차별적이다. 이런 차이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 수립 시 성인직적 복지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정책담당자의 성인직적 관점이 낮다는 연구결과(박미석 등 2003)로 미루어 복지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한 성인직적 향상과 성평등적인 마인드제고를 위한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남성단독가구와 부자가구에 대한 성인직적 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이혼 후 자녀양육부담에 대한 여성의 기피는 남성아동양육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 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빈곤의 주요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이런 구성요소들 간의 성차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빈곤층의 빈곤실상을 알아보면, 월평균 소득이 약 100만 원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에서도 가구 간 차이가 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으며, 노동참여를 하여도 임시 노동직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주요 빈곤구성 요소들은 연령, 학력, 소득, 건

강, 가계전망, 가구형태 등이었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 또한 성차별적인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빈곤구성에서 연령이 높은 것이 주된 요소인 반면에 남성들은 신체장애가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층을 보면, 여성들은 6,70대가 주를 이루는 반면에 남성들은 50대가 주를 이루고, 남성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대개 경우에 남성들은 부부가구가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단독가구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가 빈곤의 노령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또한 가구형태와도 연계되어 있는데, 즉 노령화된 여성의 경우에 단독가구가 많고, 그 경우에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빈곤지형에서 가장 심각한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형이었던 남성부양자모델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이영자 2006).

둘째, 남성에게 있어서 연령과 학력요인이 빈곤탈출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 남성의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빈곤탈출가능성이 높았다. 이 부분은 연령과 학력의 차이에 따른 지원 내역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공적이전과 같은 지원을 통하여 자활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빈곤집단일수록 자활을 통한 노동참여를 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소득요인에 대한 성별 차이이다. 탈출가능성에서 소득요인은 여성에게만 영향 준 성별화된 변인이었다. 여성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빈곤탈출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에 남성들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대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녀가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여성은 빈곤탈출의 의지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젊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자활 및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공적지원

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노동참여를 통한 자활모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구형태가 빈곤탈출과 빈곤의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단독가구에 비하여 한부모가구 여성은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남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여성들은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단독가구보다 탈출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이 점은 여성은 자녀를 희망의 출구로 여기는 반면에 남성은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이런 빈곤구성에서 성차별적 요소는 여성과 남성간의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한다. 자활공동체와 모자가족의 경우에 여성의 노동참여에서 비롯되는 소득을 보전해 주어서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노령의 빈곤여성의 경우에는 고령과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사회보장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빈곤층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장애의 비중이 높으므로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과 사회보장차원의 사회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손태홍 2006).

마지막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개인적인 한계를 강조하고자 한다. 낮은 학력, 저 숙련, 고령과 장애와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사회복지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사회구조적인 것이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만큼 교육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학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으며, 나아가 일차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그 만큼 낮고, 열악한 노동참여의 결과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환경은 빈곤의 순환 고리가 반복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복지정책들의 점검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남식·정진주·백선희(2001)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 정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연

구소.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82-112.  
 김영란(2005) 신빈곤 발생구조와 빈곤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245-273.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6.  
 김혜영(2004) 한국사회의 빈곤의 여성화: 여성가구주의 빈곤요인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김혜영·이은주·윤홍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제고. 아시아여성연구 44(1), 5-51.  
 나금실(2006) 노동빈곤의 형성.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세미나 논문자료집.  
 박경숙 외(2005) 빈곤의 순환고리들. 부산: 동아대출판부.  
 박미석·한정원·송인자(2003)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서울시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한국여성학 19(3)호, 179-214.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박재규(2003)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3, 81-112.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2호, 167-194.  
 석재은·김용하·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분석과 탈빈곤정책과제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임정기(2007) 여성의 빈곤실태분석과 탈빈곤정책과제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태홍(2006) 공무원간담회를 통해서 본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의 함의.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세미나 논문자료집.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185-219.  
 유정원(1999) 한국여성빈곤의 특성과 관한 연구: 제 4,5,6차 빈곤 대우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숙진(2002)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한국여성학 18(2), 37-72.  
 이영자(2006) 남성부양자 모델과 여성빈곤. 성평등연구 10, 1-33.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원섭(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경(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한국대표부.  
 장세훈(2000)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김동춘 편. IMF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남.  
 정미숙(2001) 여성가구주, 성별화 된 빈곤 그리고

- 일. 경제와 사회 51(봄), 38-67.
-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희·박찬임(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최현수·류연규(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통계청(2002) 『한국통계연감』.
- 허미영(2006a) 빈곤의 여성화: 빈곤계기와 가족의 역할 - 부산·경남지역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236-262.
- 허미영(2006b) 빈곤의 계기의 성차. 박경숙 편 삶의 기회. 부산: 동아대 출판부. 163-195.
- Jonson RW, Sambamoorthi U, Crystal S(1999) Gender differences in pension Wealth. *The Gerontologist* 39(3), 320-333.
- McLoughlin DK & Jenson L(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 469-479.
- Millar J & C Glendinning(1987) Invisible Women, Invisible Poverty. in C. Glendinning, and J. Millar (eds.). *Women and Poverty in Britain*.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Pampel FC (1998) Aging, Social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Pearce D(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
- Pierson C(2001) *The Welfare State*. Polity Press.
- Simon-Rubinowitz L, Wilson LB, Marks LN, Krach CA, Welch C(1998) Future work and retirement needs: Policy experts and baby boomers express their views. *Generations*, 22(spring), 34-40.